

5/30(월) 욥기 32-37장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등장과 응답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동시에 주권적인 분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택하십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엘리후는 다소 건방지고 무례합니다(32장).
시끄러운 등장이 무색하게 세 친구와 별반 다를없기도 합니다(34-35장).
앞서 살펴본 바, 어떤 누구도 완벽한 답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28장).
그럼에도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숨을 고르며 다음을 준비케 합니다.

세 친구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지만,
엘리후는 <더 긍정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 언급합니다(33:30).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36:15-16)”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통제하십니다.
고난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이해와 경험, 영적 지평을 확장 하십니다(대상4:10).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중에 큰일을 행하십니다(36:26, 37:5).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35:10).

나는 고난을 통해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 ❶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까?
- ❷ 캄캄한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욥기 32-37장